

다산포럼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문학평론가

궤변의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법

는 기술이다. 세월호 문제가 민생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부터가 궤변이다. 국가의 안전망이 총체적으로 무너진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민생의 기초인데, 그런 주장이 민생을 해친다는 해괴한 논법이 유행한다. 그 언필청 민생이라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삶을 보살피는 진짜 민생이 아니라 대기업의 숙원을 해결하자는 것임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는다. 최근 담배값 인상 계획 발표로 빚어진 중세 문제도 그렇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지만 실은 담배의 주된 소비자인 보통사람들의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강행한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그 결과 생겨난 국가 빚이나 복지예산 부족을 서민들에게서 뺏아내겠다는 발상이다. 애초에 증세 없는 복지는 이 정부의 구조 자체가 부자감세를 유지하기 위한 궤변이었으니, 궤변이 궤변을 낳는, 그야말로 궤변의 자기증식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고, 이 정권 들어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궤변들의 기원이자

토대를 이루는 것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궤변이다. 국민 앞에 공개된 증거만 해도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이 명백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이 기소한 사안임에도, 온갖 구실로 사실들을 몽고개 변조시키는 가운데 최근 1심 판결은 '정치개입은 맞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희한한 수사학을 선보였다. 오죽하면 현직 부장판사가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궤변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겠는가? 궤변가를 말하는 소피스트는 원래 지혜를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이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그럴싸한 논리로 대중들을 속여 넘기기에 몰두한 결과 궤변가가 되고 불리게 되었다. 소피스트는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시대에 주로 득세하기 마련이며, 그만큼 현실권력과 밀착되어 있다. 실제로 지혜의 전도사라고 할 소크라테스는 이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였다. 궤변은 그만큼 힘이 세며,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그토록 궤변이 성행하는 것도 그 배후에 기득권층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치권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권력의 탄생 자체가 불법적인 성격을 안고 있기 때문에 궤변은 더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궤변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험겨운 싸움이다. 언론이 그렇듯 궤변을 생산해내는 기제는 그만큼 강하고, 법이 그렇듯 권력의 입맛에 맞는 궤변적인 판결은 속출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 또한 궤변을 집짓 받아들이는 기성질서에 영합하고자 하는 우중(愚衆)으로 추락하기 일쑤다. 알고보면 야당조차도 이 궤변의 시대의 일원이다.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이 민주사회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비난하면서도 대선 불복을 아님을 줄기차게 강조하였다. 이리저리 어떻게 이처럼 궤변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 난세를 사는 지혜를 구하고 싶은 요즘이다. 예수는 험한 시대 진리를 전파해야 할 사명을 지닌 사도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했다. 어쩌면 사도들이 찾아 나가야 할 지혜로운 실천은 오늘날의 시민 모두의 과제일 지도 모른다.

정춘 특·특



김희영
목포대학교 국어국문과

목포대 재능 기부 강연회 '울림'을 아시나요?

전체라고 했지만, 나만큼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똑같은 일상, 낯에 는 수감이라는 명목의 집을 짓고, 밤에는 해가 뜰 때까지 술을 마시러 다녔다.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이것은 술병으로 아파하는 절없는 스무 살에 불과했다. 대학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던 즈음, 찾았다. 특이한 것을! 대학교 방송국에서 생활하던 내게 “울림”을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어요?라는 제안은 확실히 인상 깊었다. 울림, 울림이라는 강연회를 만들어가는 단체 이름은 그야말로 울라기보자는 취지의 이름, ‘오름목’이었다. 울림목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자치기구다. 동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총학생회도 아닌 어정정한 단체. 학교의 지원금이란 명목 돈도 일절 받지 않았다. 학생 스스로 강연회를 기획하고 완성시켜보자는 것이 울림목의 다부진 포부였다. 울림은 목포대학교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강연회였다. 늘 강연이라고 하면 지식이 풍부하거나 사회경험이 많은 사람

이 하기 마련인데, 그 틀을 깨보자는 것이다. 울림목의 제안에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YES”를 외쳤다. 울림은 한 학기에 2번 진행됐다. 강연자는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으로 이뤄졌다. 강연에 필요한 금액은 후원 상가를 찾아가 사장님을 설득해 마련했다. 그러다보니 겨우 강연회에 맞춰 예산이 만들어졌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이라도 벌지, 이걸 돈도 받을 수 없고, 학기 중 내내 바쁘기만 했다. 출석체크는 해왔던 강의시간도 지각하기 일쑤고, 일을 할 때마다 맘을 쭉쭉 빼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이런 날더러 바보 같다고 했다. 2시간 알바하면 만원이라는 공돈이 떨어지는 세상에, 사람들은 나더러 시간을 버린다고 했다. 하지만 울림목 멤버로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은 없었다. 울림목은 내게 대학생들의 로망을 채워주기에 충분했으니가.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었다. 울림목은 열정으로 뚫뚫 뚫진 사람들 모임이었다. 그들은 수업을 빼기도 하고, 레포트를 짤

박하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것은 울림을 끝내고 나면 마법처럼 사라진 공돈이니까, 울림을 보러온 학우들로부터 쏟아지는 수많은 박수갈채. 그 사이에 두 손 꼭 잡고 대중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울림목에게 자부심과 성취감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어느 누가 대학에 들어와 후문 사장님께 기획서를 들이밀어 보고, PD처럼 무대를 구성해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학우들의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었을까? 울림목에 들기 전에 나는 겁쟁이었다. 방학도 있고 겁은 비닐봉지처럼 하늘에 아무렇게나 나부꼈다. 그랬지만 울림을 기획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나는 바뀌었다.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갔고 그렇게 겨울이 왔을 때, 4학년이 문을 두드렸다. 이제 취업을 해야 한다고 내게 손짓했다. 이제 나는 울림목에서 벗어나 이전에 없던 용기와 포부로 다른 세상에 문을 두드리려 한다. 열정이라는 이 한 단어가 만들어낸 기적. 대학생들이 꾸며놓은 가슴 울리는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社說

지역실정 철저히 외면한 지방세계 개편

정부가 주민세 및 자동차세 대폭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계 개편방안’을 내놓았지만 전남도 등 인구 감소 지역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나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세수부담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서민증세’라는 비난이 터져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그동안 1만 원 이내에서 결정했던 주민세를 1만 원 이상~2만 원 이내로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 2016년에는 1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를 분석해 보면 각각 4500원과 5000원 수준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민세가 내년부터 2배 가까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까지 인상된다.

이 같은 지방세 인상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지방재정의 대규모 확충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복지 디폴트’ 경고에 맞선 꼼수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방세계개편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없이 지방세계개편의 개선은 요원하다. 더욱이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세계개편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또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교육·문화 분야는 부메랑이 되어 머지않아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의 채널을 당장 열어 세계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 ‘9시 등교’ 공론화 통해 결정해야

경기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실시하면서 일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도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갑작스런 등교시간 조정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성영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등교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어 이를 늦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시간대 조정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등을 파악해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등교시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30분 전후, 고등학교는 오전 7시40분이다. 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안에 초·중·고교 교장단협의회를 열어 일선 학교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학교별, 지역별로 여론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학생들이 아침잠을 설치지 않고 아침 식사 후 등교를 할 수 있으며, 교사들도 수업을 준비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와 일부 교사들의 의견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다른 가족의 출근시간과 맞춰야 하는 데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생들만 집에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교사들은 ‘9시 등교’를 법적으로 해 본 학교도 있지만 1교시 수업이 진행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하교시간만 늦어져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9시 등교’는 먼저 경기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단계적 개선을 통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몇 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하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대 실시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다.

無等鼓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노래 ‘독기’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온다. “내게 돈은 바람난 첫사랑 같지/ 저주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니...난 돈이 없어 나라서 지원을 받고/ 난 돈이 없어 미술 공부도 못했고/ 난 돈이 없어 친구 MP3를 뺏았어”

돈을 택했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다. 이방원은 마을 최고 부자 신치규의 막실살이(머슴살이)를 하면서 아내를 부양한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물레방아 간에서 신치규와 정을 통하고 나서 동시에 사랑하니...난 돈이 없어 나라서 지원을 받고/ 난 돈이 없어 미술 공부도 못했고/ 난 돈이 없어 친구 MP3를 뺏았어”

동상이몽

래퍼는 빠르고 거친 단어로 돈의 마력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고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돈 높이의 달인이었다. 곡물과 옛기름 사재기로 돈을 벌다 여러 번 벌금을 물고 여당같이 행동하는 기득권에 집착하여 당의 쇠퇴도 거부하는 그런 이유 보수정당일 뿐이다. 최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를 보면, 이 정당이 어설픔게 창당했던 것처럼 어설픔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를 확고히 함으로써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에게 인정받고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당을 쇠신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집행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부터 전부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정치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보는.

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남녀의 대답이 달랐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는다는 생각이 같았지만 남자는 배우자를 돈보다 중히 여긴다는 대답을 내놓고, 여자는 배우자보다 돈을 선택했다. 돈이 필요하면 첫셋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여자들은 돈·말·건강·친구·찜질방을, 남자들은 부인·아내·집사람·와이프·애들 엄마라는 우스갯소리가 농담이 아닌 듯했다. 돈 앞에선 부부도 동상이몽(同床異夢)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게 보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기고



김세현
광주경실련 정책부장

야당은 야당다워야 살아남는다

듯하다. 단적으로 야당은 야당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야당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배고픔과 서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게 두번의 정권 획득과정에서 소위 민주당으로 대변되어왔던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을 준 것이 분명하다. 바로 절실함의 부재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절실함’은 단순히 어휘가 가지는 느낌을 넘어서는 전투력으로 승화된다. 또한 기득권을 배제한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고 그들을 포섭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새민련은 야당다운 야당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출신인 이상돈 전 교수를 영입하려고 한다거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응의 미흡함을 보인다거나 어설픈 전략공천으로 당이 가지는 내부기준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키거나 하는 등 배부는 야당이나 할 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자를 결집할 수 있는 확실한 노선이나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가져야 할 야당으로써의 역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의 부재이다. 전자의 경우, 선거를 몇 달 남기고 당을 창당한다거나 기존의 기득권에 기름진 인사들을 다시 중용하는 행태는 투표권자들이 바라는 야당에 대한 기대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였으며,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무례함이다. 나아가 후자의 경우, 적극적인 시민들과의 교류를 위한 소셜네트워크의 도입 혹은 찾아가는 소통 등의 방식의 도입이 아닌 90년대 정치 수단을 그대로 도입하는 후퇴함을 보았으므로 민의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젊은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구성원의 쇠신, 젊은 정당으로 보이기 위한 젊은 재원들의 영입, 소셜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움직임 등을 통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는 노력의 부재, 나아가 집권여당의 파트너이자 제2의 정당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패배의 인정에 대

한 반증이라 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인가? 혹은 보수인가? 또한 젊은 정당인가? 혹은 늙은 정당인가? 아니면 정책정당인가? 혹은 정치정당인가? 나아가 여당인가? 혹은 야당인가? 바로 이 질문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시민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요, 늙은 정당이며, 정치정당으로 여당같이 행동하는 기득권에 집착하여 당의 쇠퇴도 거부하는 그런 이유 보수정당일 뿐이다. 최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를 보면, 이 정당이 어설픔게 창당했던 것처럼 어설픔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를 확고히 함으로써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에게 인정받고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당을 쇠신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집행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부터 전부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정치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보는.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정춘특·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